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9.02.111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방행인 :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빛 _ 최상철 건축사

03 **종합**

사랑에서 _ 나눔과 사회 기여

법령소식 _ 2019년 1월~2월 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시행 알림

04-05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2019년도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도내 전체 건축물 중 43%가 30년 넘는 노후된 건축물로 나타나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2019년도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전라남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

08-09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제32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광주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10 **작품소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일반분야) 금상 수상작

11 **종합뉴스**

제32대 시·도건축사회 회장 협의회, 1월 부산 회의 성료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5년 인증받아

12 **독자광장**

한 편의 시 _ 고리

세상사는 느낌 _ 내일 그대와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GJAC)은
건축사의 품위 있는 노후를 설계합니다!!

자재등록 협력업체의 **MOU 체결**과 **Web-site 등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아키플랜주식회사(구조감리, 안전진단), 대양단열 주식회사, ㈜창명건업, 주식회사 데코페이브, 동일교역 주식회사, 뉴정원산업, 코벤트, ㈜행복홈우드테크, ㈜그린인슐레이터, 동일공업사, ㈜삼한씨원, 한국시험연구원㈜, ㈜태원건재이건마루, ㈜현송건설동화자연마루, ㈜성일, 통진엔지니어링㈜, ㈜센도리, ㈜일신글로벌, 태영전기안전관리 주식회사, 광주대광판넬, 승진산업㈜, 이일산업㈜, 창원기공㈜, ㈜동광명품도어, ㈜유에이치산업, 목송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경원알미늄, ㈜대명엘리베이터, 경보환경㈜, ㈜운림가

광주건축사회 회장 **강 현 구** 전남건축사회 회장 **조 연 준** 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 이사장 **신 정 철**

자재업체 등록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GJRA 광주전남 건축사 협동조합
Gwangju Jeonnam Registerd Architect Cooperative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건축사회관 5층 / T. 062-527-1237 / F. 062-527-1238 / E. gjac0101@naver.com

빛

최상철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건축사
ybdcsc@naver.com

- 1994. 1. - 현재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건축사
- 1994. 10. - 2008. 6. 전북일보에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등 연재
- 2010. 4. - 2014. 12. 월간 열린전북에 〈삶과 건축〉 등 연재
- 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 건축〉, 〈내가 살던 집 그 곳에서 만난 사랑〉, 〈전주한옥마을〉(공저)

우리들은 빛이 있는 곳에서만 형태를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현란하게 펼쳐져 있는 바로 이 삼라만상도, 사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인식되지 않는 '허상(虛像)'이라고 한다. 싫든 좋든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빛에 의지해서 세상과 사물을 인식해온 것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형태와 공간을 창출해 나가는 프로세스(process)에서 자주 번민하게 되는 우리 건축사(建築士)들에게 빛은 더 각별한 존재다. 만일 빛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여기 이 공간과 저 공간, 거기에 보란 듯이 떡 버티고 서있는 벽과 뻥 뚫린 창, 또 그로 인해 벌어지는 내외부 공간의 미묘한 차이……, 그 어느 것 하나인들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었을까?

때로는 심봉사처럼 모든 걸 손으로 직접 더듬어봐야 하고, 때로는 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심해어(深海魚)처럼 퇴화된 눈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능적으로 아가리만 쩍쩍 벌리면서 이리저리 쏘다녔을지도 모른다. 거기에서 무슨 매스(mass)의 분절과 조화, 그리고 그 비례를 통한 심미(審美)의 세계가 가당키나 했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루이스 칸(Louis Kahn)'은 참으로 탁월했다. 온누리에 무변광대(無邊廣大)하게 쏟아지고 있는 빛을 창호라는 프레임을 통하여 내부로 끌어들였다가, 그 공간에 걸맞은 건축 소재로 재창출해냈으니 말이다.

그것은 자연의 빛에 따라 색채가 일으키는 미묘한 변화 속에서 순간적으로 사물의 인상(印象)을 포착해내고 그걸 작품에 담아낸 마네(Edouard Manet), 모네(Claude Monet), 르누아르(Auguste Renoir) 등의 '인상파' 화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요즘 나는 다시 '빛'을 건축물의 배치에 대입시켜 삼원이차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는 중이다. 여름 하지 때는 기고만장하게 중천(中天)으로 높이 치솟았다가도, 겨울 동지 이맘때쯤이면 방 안 구석구석까지 속살거리며 찾아드는 빛!

우리 한반도가 북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는 탓에,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남향으로 집을 배치하고 또 남쪽에 창을 내는 것을 일종의 의무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건축사로서 직분에 충실했던 지난 세월 동안, 나 역시 그 범주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건축물을 배치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남향이나 남동향을 우선시하는 것은 물론, 건축법의 일부 제약조건을 해결한답시고 건축물을 다른 방향으로 호기롭게 배치했다가도, 추후 작업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숱한 고민과 망설임 끝에 결국 다시 '남향'으로 되돌려놓곤 하였다. 그 고정관념으로 현장을 둘러보니, 주변 산세와 지형이 제대로 시야에 들어올 리 만무했을 것이다.

그런데 건축에 풍수지리를 대입한답시고 나름대로 꾸준히 빛과 기류(氣流)를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 때부턴가 빛의 실체가 희끄무레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일반상식과는 조금 달랐다. 이른바 북향 명당이란 데가 따로 있고, 되레 서향집에서 더 많은 일조(日照)와 일사(日射)를 받을 수도 있으며, 또 북동쪽으로 돌아앉게 건물을 배치해야만 기류가 더 원활해지는 경우도 적잖았기 때문이다.

건물배치에서는 남향만이 지고지순한 가치를 지닌 게 아니라, 모두 다 주변 지형·지세 속에서 자연스레 설정되는 일종의 '관계 맺기'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새삼스러워졌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나는 나의 건축에 참으로 두꺼운 나의 고정관념부터 심어놓고 설계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다. 그것은 어찌 보면 나의 신념을 위한 해원(解寃)의 실험실이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내가 살 집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타인의 생활을 옥죄고 강요했을까? 루이스 칸(Louis Kahn)처럼 빛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당시 그들의 간절한 요구 조건부터 서슴없이 담아 내줄 것을!

분명 오도(誤導)된 신념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 어디 건축만이 그러하랴? 기실 아무 준비 없이 갑작스레 근대문물을 맞이했던 우리 사회 도처에서 지금 그 증상이 곧잘 목도(目睹)되곤 한다.

함포사격을 하며 무지막지하게 밀려드는 서구문물에 마지못해 개항(開港)을 당하고 단발령에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반민특위(反民特委)마저 공중분해 된 채 지난 수십 년을 친일부역자들이 버젓이 활보하도록 놔뒀던, 그래서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오롯이 지니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불편한 과거 이력 때문에 그 잘못된 신념의 폐해가 유독 더 심하게 우리 사회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동지 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마치 포복을 하듯 내 방 안으로 속살거리며 파고드는 겨울 햇빛을 몇 번 맞이하고 또 배웅하다 보니, 이제야 내 곁에 찾아드는 '빛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일반적으로 빛은 입자(粒子)로서 직진만 하다가도 매질(媒質)이 바뀌면 그 경계면에서 순간적으로 반사되거나 굴절되기도 하고, 때로 장애물이 제 앞을 가로막는다 싶으면 손쉽게 파동(波動)으로 돌변하여 휘돌아나가는 등 입자와 파동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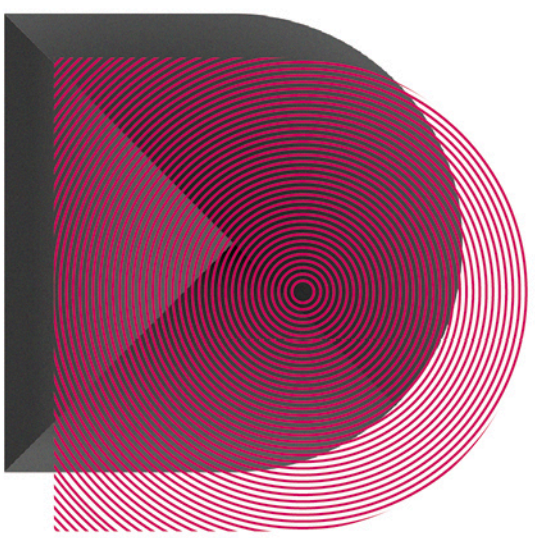
좋든 싫든 우리 건축사는 그 빛을 건축의 주요 소재로 다뤄야 하는 숙명을 걸머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겨우 그 임무 하나를 깨닫는 데 벌써 사반세기를 허비하였으니, 이를 어쩌랴? 본디 천학비재(淺學菲才)한 데다가 지금까지의 그 기나긴 여정에서조차 해찰만 일삼아 온 탓인 것 같다. 오호, 통재(痛哉)라!

같지만 다른 캐드,
아키디자인
무료제품출시

일반캐드, 리습, 3rd Party
그리고 건축전용기능까지

지금 바로 www.midasCAD.com에서
무료로 제품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MIDAS 1899-9260



작업효율 3배 향상

지겨운 라인편집 작업 → Direct Draw !
잦은 면적산정/도면수정 → Auto Revision !
단순반복 출력, PDF변환 → 1 Click !

쓰던 방식 그대로

기본 2D캐드 기능 지원
리습, 3rd Party 기능 기본탑재

사랑에서 _ 쉰한 번째

나눔과 사회 기여

나눔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소학(小學)에서는 적이능산(積而能散), 재물을 모았으면 흩어서 쓰라. 즉 재물을 모아 능히 유익한 일에 쓸 수 있으라 말합니다.

국내 모 기업 창업자는 기업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라 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에
보탬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기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업을 일으킴과 동시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런 기업만이 영속적으로 대성(大成) 할 수 있는기라."
- 구인회 (1907~1969)

건축사의 직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러기에 앞서 기술과 상품을 팔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작가의 정신으로 프로젝트에 임하여 예술 분야로 분류되어지길 기대하는 노력도 있지요. 어떻게 하면 건축사 자격으로 만들어진 1인 기업,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기업이 사회와 함께 백년대계에 보탬이 되고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건축사의 대표적인 업무는 설계입니다. 그 결과물은 땅 위의 건축으로 남지요. 일상의 건축을 대다수가 이윤추구를 위한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분양과 임대 수익을 성공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을 고뇌하고 노력하는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이 어떤 용도를 담는 그릇인가에 따라 나 또한 그 그릇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유통을 하듯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이 아닌 건축은 설계자의 정신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설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축사는 나의 정체성과 기업가로서 경영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치관이 더욱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사고는 개별 프로젝트의 공정에 따른 건축설계에서 인허가, 착공, 감리,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쫓기듯 반복되는 시간 사이클과 주어진 땅의 한정된 장소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인본적 사고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시간적, 공간적 영역을 확장하여 보다 넓은 맥락에서 나를 인지하고 기업을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수단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재물 위에 나를 올려 사람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나를 보지 못하고 재물을 볼 수 있기에..., 겸허한 자세로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목표는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노력이, 우리의 작은 동참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천십구년 이월 십일 마륵로 67

자문위원_정명환 건축사(a2700@hanmail.net)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2월 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시행 알림

시행일자	법령명	주요내용
2019. 01.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의 차로 높이 규정 (현행) 규정 없음 (개정) 2.7미터 이상 확보
2019. 0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51호)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현행) 규정 없음 (개정)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및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2019. 01.19.	「건축법」 (법률 제15992호)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입지와 규모 등의 사전결정 협의기간 (현행)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 (개정)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2019. 01.19.	「건축사법」 (법률 제15993호)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규정 신설 (현행) 규정 없음 (개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2019. 02.15.	「건축법」 (법률 제15721호)	•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개정)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 상기 내용 관련 특이사항은 [알림 2019-004, 005] 참조
2019. 02.15.	「주택법」 (법률 제15738호)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정의 추가 (현행)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 (개정)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
2019. 02.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33호)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설계도서 제출기간 및 벌칙 조항 신설 (현행) 규정 없음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묵,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 집 인	강동영
부 편 집 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 문 위 원	서재형, 정명환
전 담 기 자	곽승국
논 설 위 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편 집 위 원	정관성, 김미영,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박종혁, 설혜순, 정영법
등 록 번 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 록 일 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 고 신 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주)씨엠엑스	350,000원
(주)마이다스이이티	300,000원
법무법인 법가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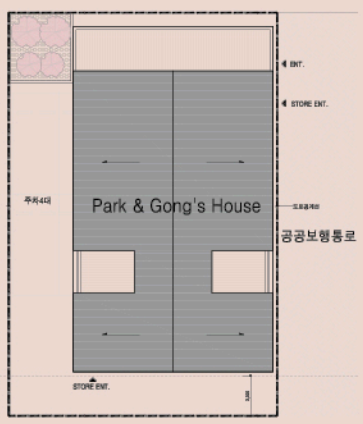
만성동 박공집

김현철 건축사 /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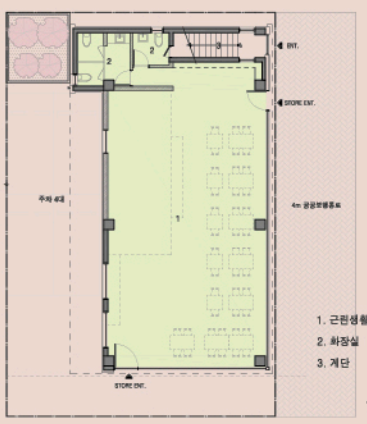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룡6길 4, 4층 tel. 063-252-3378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6-4번지 / 대지면적 : 265.80㎡ / 건축면적 : 158.66㎡ / 연면적 : 380.37㎡
건폐율 : 59.69% / 용적률 : 143.10% / 주용도 :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화강석, 징크패널, 로이복층유리, 이페목

주된 고민의 포커스는 새롭게 조성된 개발지구 내 상가주택의 자리 잡음과 거주자의 삶의 패턴이 녹아든 세대 유닛과 조형이었다. 주안점을 바탕으로 보행로와 도로변으로 개방된 상가를 위치시키고 하부(상가)와 상부(주택)가 어우러진 유니크한 조형을 구성하여 단지 내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였다.
주거 동선은 대지 후면부를 출입하고 다락과 연계된 두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공용데크를 구성하여 두 가족이 집의 처음과 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했다.
세대 유닛은 2세대를 위한 복층형 주거공간을 계획했다. 2층에 개인 공간인 아이 방, 안방을 두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3층에 공용공간인 거실 식당을 두어 다락과 연계된 다양한 공간감을 구성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전북건축사회, 2019년도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15일 오후 4시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진행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오는 3월 15일 오후 4시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2019년도 제53회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으로는 2018년도 회계결산과 2019년도 예산승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 회칙 개정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회칙 개정의 건에서는 기존 임원의 정원을 16명(감사 제외)에서 1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진행되는 감사선거에 전주지역 소속 김유천 건축사(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가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내 전체 건축물 중 43%가 30년 넘는 노후된 건축물로 나타나

지난 2월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축물 현황에... 전국 6번째로 높아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7일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체 건축물은 총 45만107동으로 이중 준공 후 30년이 넘는 노후건축물은 19만33동(42.2%)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산(53.2%), 전남(47.9%), 대전(47.1%), 대구(47.0%), 경북(43.5%)에 이어 노후율이 6번째로 높다.

35년 이상 된 건축물이 17만89동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35년 미만 건축물도 1만9944동으로 조사됐다.

10년 미만 건물은 7만9645동, 10~15년 미만 3만9083동, 15~20년 미만 3만6413동, 20~25년 미만 5만5571동, 25~30년 미만 3만6683동이었다.

도내 건축물의 유형별로는 주거용 27만827동, 상업용 7만5612동, 공업용 1만2943동, 문교·사회용 1만4645동, 기타 7만6080동이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27만827동 중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14만5634동으로 전체 주거용 건축물의 54.1%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순창군이 4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안군 39.2%, 진안군 35.4%, 장수군 31.9%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북 전주시, 용머리 여의주 마을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지난 1월 24일 바울교회에서 주민 등 100여 명 참석...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전북 전주시가 노후주택이 밀집된 완산구 서완산동 용머리 여의주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공동주택으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해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용머리 여의주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월 24일 완산구 서완산동 바울교회에서 용머리 여의주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 합의를 할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건축협정 등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용머리 여의주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인 주택정비 수단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키로 결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날 설명회를 마련했다.

용머리 여의주 마을 주민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감정원 관계자로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내용과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의 기금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접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금융지원을 맡는다. 융자대상은 사업비, 이주비, 선순위물권해지비로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최장 5년까지이다.

이와 관련, 용머리 여의주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1년까지 국비 45억 원을 포함한 총 75억 원이 투입돼 노후주택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동 15통·17통, 효자1동 2통 일부 지역을 마을개선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정비', '마을 내 공공용지에 주차장과 진입로 등 조성', '폐·공가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으로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추진돼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전북 익산 오치광 건축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지난 1월 15일 익산시 홍보관에서 열린 위원회 간담회에서 추대...

전북 익산의 한울 건축사사무소 오치광 건축사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홍보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전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으로 오치광 건축사를 선임했는데 "오치광 건축사는 지난 2년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원인 직접 면담 및 현장 확인, 법령 검토 등을 통해 다수의 고충 민원을 해결한 바 있는 등 다수 행정 경험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열정을 높이 평가해 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치광 건축사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의 복잡·다양한 고충 민원의 해소를 통해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작은 힘으로 큰 고충 덜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축사 및 변호사, 교수, 시민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고충 민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본격 추진

지난해 12월 '중앙동'과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 완료

군산시가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앙동과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닻을 올린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까지 째보선창 일원에 수협창고 등 5대 도시재생 거점을 개발하고 27개의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과 복합 레저 숙박 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5대 거점인 수협창고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룡화석산지 개발과 연계하여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주민과 인근 산단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대상 부지 협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박경만 건축사 / 박경만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55
  - 서민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로 9
  - 이종진 건축사 / 세림그룹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서곡길 52
  - 송미영 건축사 / 디에스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11
  - 홍미희 건축사 / 온유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9-9
  - 장필수 건축사 / 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4
  - 오경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11-15
  - 양경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스토리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3
- **변경(소재지)**
  - 최희곤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모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18-1
- **부고**
  - 오신철 건축사 / 가람설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1월 08일(화)
  - 김정태 건축사 / 김정태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1월 25일(금)

코쿤하우스 (CoCoon House)

전인천 건축사 / 다르다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원형동로 25, 301호
Tel. 061-285-7908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04번지 / 대지면적 : 218.00㎡ / 건축면적 : 129.57㎡ / 연면적 : 433.50㎡
건폐율 : 59.44 % / 용적률 : 198.85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외단열시스템(스타코), 모노타일

전남건축사회, 2019년도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19년도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에 1부에서 국민 의례와 건축사헌장 낭독, 개회사 및 격려사,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등 의식행사가 진행되며, 2부 정기총회 본식에서는 사업 보고를 비롯해 감사보고, 예결산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조연준 현 회장의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정기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

올해 중앙부처서 3곳, 도에서 5곳 선정 예정

전라남도는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상반기 공모를 지난 2월 8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올해는 중앙정부 공모에서 3곳, 전라남도에서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1월 17일에는 시군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토론회를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열고, 생활 SOC 반영과 역사문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 요령 등을 토론했다.

또한 정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온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협의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디자인전문가, 시군 도시재생센터장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까지 전남지역 8개 시군 13곳에서 2천250억 원 규모가 선정됐다. 주차장 및 도로정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청년창업 공간 조성, 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하반기 공모는 6월 이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전국 최다 확보

1천655동... 읍면동서 신청받아 노후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 융자지원

전라남도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1천655동의 물량을 확보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지난 2월 2일 밝혔다. 이는 전국(8천862동)의 18.7%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확보한 것은 시군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 철저한 추진 상황 관리와 전라남도의 농촌주거환경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받은 데 따른 것이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협에서 주택 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협에서는 주택건축비 범위에서 대출 심사(신용 및 단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연면적 150㎡ 이내 신축·개축·재축 등은 연리 2%,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선금(중도금)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취득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

사업 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을 바라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촌주택개량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남 순천시, 2019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

2월 15일까지 1차 신청 마감... 단독주택과 연면적 660㎡ 이하 주상복합 대상

명말경로당(패시브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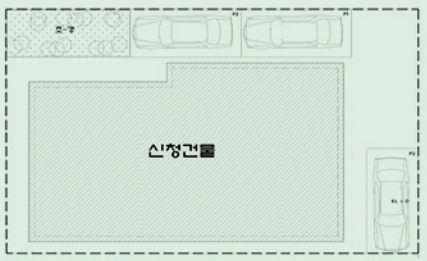
전남 순천시는 2015년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5년째 민간분야에서 녹색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에도 단독주택과 연면적 660㎡ 이하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성능이 높아 난방비가 크게 절감되는 패시브 하우스로 건축할 경우 공사비의 50%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에도 공사비의 50% 내에서 최대 315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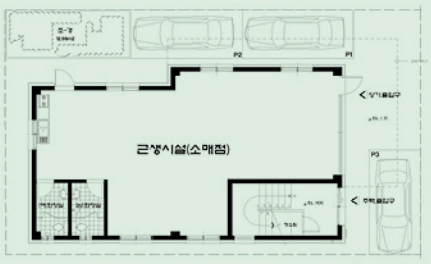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1월 2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공개모집 중이며, 접수된 신청서는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

"나 혼자만의 작은 공간"

정북일조권과 주차계획에 따른 메스형태와 거주자들의 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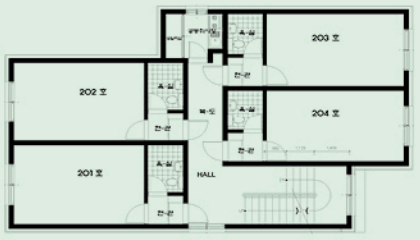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므로 건축 예정 중인 시민들은 2월 15일 1차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5년간 패시브하우스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민간건축물 200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건축과(TEL. 061-749-6386)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조례 제정 추진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지원 대상 등 내용 담아... 4월 의회 상정 방침

전남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지난 2월 6일 밝혔다.

조례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은 물론 지원 대상 및 기준, 투기 방지 등의 내용을 담는다.

또 토지매입과 보수정비 대상 선정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대역사문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지원 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및 투기를 억제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문화재청에 조례안 검토를 요청한 데 이어 입법 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 4038㎡에 5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은 2023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며 인근에 산재한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해 전시·체험공간 등을 조성한다.

전남 여수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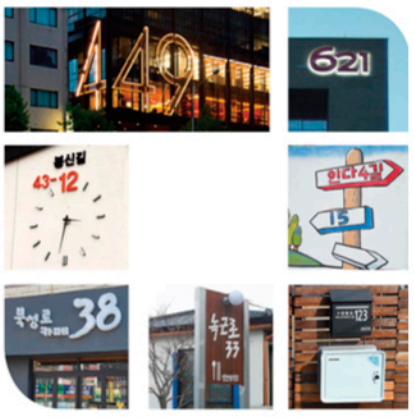
주택 123동 대상,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지원... 이달 20일까지 신청

전남 여수시는 주택 123가구를 선정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주택이며, 1가구당 120㎡ 기준 336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된다.

또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 24가구를 선정해 최대 302만 원까지 지붕개량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이번 달 20일까지며, 접수처는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자 중 기초수급자 등 취약 사유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전남 여수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홍보 나서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도면 반영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전남 여수시는 지난 1월 15일 관내 건축사사무소 44개소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건축도면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주가 건물의 외관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직접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할 경우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표기해 신청하거나 건축설계도서에 반영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상용화되면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관내 건축사사무소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 여수시, 도시계획·토지이용·건축분야·상담팀 운영

2월부터 전문 공무원 3명, 매월 3회 읍면동을 순회...

전남 여수시는 2월부터 토지이용 궁금증 해소와 도시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친절 상담팀을 운영한다고 지난 1월 28일 밝혔다.

상담팀은 건축 분야, 도시계획 분야, 토지이용 분야 등의 전문 공무원 3명으로 꾸려지며, 매월 3회 읍면동을 순회한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며, 상담 분야는 도시계획 민원, 각종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도시계획 건의 및 애로사항 접수·처리 등이다.

여수시는 다양한 도시계획 의견을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김성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맥토 / 전남 여수시 시청서1길 32, 2층
  - 김병원 건축사 / 상록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5, 2층
- **결혼**
  - 김영진 건축사 / 에리트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01월 05일(토)
- **부고**
  - 이용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레 / 모친상 - 01월 08일(화)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제32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2019년도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1부 기념식과 2부 본식으로 나눠 열리는데 1부 기념식에서는 개회사 및 인사말,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퇴임 임원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 등이 열리고 2부 본식에서는 신입회원 소개와 감사보고, 안건상정 및 의결 등의 식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와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총회도 함께 개최된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

1월 3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위원 워크숍에서... 위원장에는 동신대 손승광 교수가...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이 지난 1월 30일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워크숍에서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이날 건축위원회 워크숍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가한 각계각층 분야 전문가 46명은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강연 청취와 함께 간담회 등을 갖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에서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과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가 추천되어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24 대 22, 근소한 차이로 위원장에 손승광 교수가 선출되었고, 위원들의 추대로 강현구 회장이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강현구 회장은 "향후 광주광역시 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19년 1월 1일 자로 위촉된 약 55명의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광주건축사회, 서구청 주도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 업무협약 체결

지난 2월 1일 서구청 상황실에서... 27개 기관, 단체 병원과 공동 업무협약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2월 1일 광주 서구청 3층 상황실에서 서구청 주도의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지역통합돌봄체계) 선제적 추진을 위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지원 관련 여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건축사회를 비롯해 전

남대학교병원, LH광주전남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국민건강보험 광주서부지사 등 27개 기관, 단체, 병원이 참여했다.

또 협약식에서 서대석 서구청장과 전남대학교병원 이삼용 병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되고, 민관협의체 TF팀의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상호 협력의 다직종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주 서구만의 특화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키로 다짐했다.

서대석 청장은 이 자리에서 "민관협력의 성공적 복지모델로 인정받으며 10여 년간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케어사업을 반드시 유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제1회 이사 회의에서 제32회 정기총회 표창 수상자 결정

오는 3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시상... 건축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등 16인 선정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월 21일 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이사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5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표창 수상자를 결정했다.

감사패는 우리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관련 공무원 7인과 언론인 3인이 선정되었고, 공로패는 건축사회 임기 만료 및 퇴임 임원 6인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최종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상자	비고
감사패	• 광주시청 : 박금화 사무관(건축주택과) • 동 구 청 : 민지현 주무관(건축과) • 서 구 청 : 임소형 주무관(건축과) • 북 구 청 : 김경중 과장(건축과) • 남 구 청 : 양철훈 주무관(회계과) • 광산구청 : 임승현 주무관(건축과) • 광주지방경찰청 : 조윤희 팀장(상황팀)	건축 관련 공무원 (7인)
	•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남일보	언론인 (3인)
공로패	• 이사 : 김선영(일우), 이기수(시중), 임채열(나성), 정관성(자경재), 한상훈(휴) • 감사 : 문강욱(승)	임원 등 (6인)

광주건축사회 경단녀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여가부 국비지원사업에 선정

전국에서 최초... 3월부터 7월까지 교육 진행, 건축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일조 기대

광주건축사회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계획한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건설기초교육 및 건축사사무소 취업알선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건축사회는 북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약을 추진하고, 3월초까지 교육인원 20여 명이 선발되면, 3월부터 7월까지 건축법규와 CAD, 구조, 실시계획 등 소정의 건축기초교육을 지원·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 채용 의사를 밝힌 회원 건축사사무소들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향후 해당 사업을 확대 및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회원사들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건축가회, 신임 회장에 전남대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선출

지난 1월 22일 동구 금수장에서 열린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는 지난 1월 22일 동구 계림동 금수장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를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유우상 교수는 광주시 디자인자문위원회 위원과 목포시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도코모모 코리아 이사,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제온돌학회 논문집 편집위원장, 국제어바니즘(IFOU)포럼 이사, 광주시 공공디자인 위원, 전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한다

건축계 등 추천 통해 2월 말경 선정... 건축 정책 등 총괄기획 및 자문 역할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 10일 건축·도시공간 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의 공공행정참여 제도로, 중앙정부 공공건축 혁신 9대 과제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광주시가 특·광역시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한다.

광주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압축성장 도시개발로 인해 광주만의 건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한계점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학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등 지역 건축단체 회장단과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 건축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월 지역건축 관계자 최종 검토 회의를 거쳐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어 역량 있는 적임자가 총괄건축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역건축계의 추천을 받아 2월 말경 총괄건축가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공간 정책 수립 및 사업의 기획·발주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과 '우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조정 및 자문',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추진 부서 간 상호 협력 및 협업 추진' 등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기획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광주시는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총괄건축가에게 (가칭)광주 아트폴리스 정책을 맡겨 시행한다. 광주 아트폴리스 사업은 1, 2호 사업으로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진흥센터와 구 인화학교 부지의 장애인 수련 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감사 선거 공고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회 2019년도 감사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선거구분 : 2019년도 감사 선거
2. 등록자격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회원
   단) 회칙 제9조의 회원의 권리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3. 등록기간 : 2019년 2월 18일(월) ~ 2019년 2월 22일(금)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4. 등록방법 : 아래 등록서류를 본 시회 사무국으로 제출
5. 등록서류
   가.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시회 소정의 양식) 1부
   나. 입후보자 소견서
   다. 이력서
   라. 후보자 추천서(시회 소정의 양식) [감사 : 선거인 20인 이상 추천]
   단) 각 선거 내 후보자 추천서에 선거인 중복추천은 포함하지 않음
   마. 선거공보 원고 7부 및 PDF 파일
   [A4 규격 1매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사진, 성명, 생년, 학력, 경력, 소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바. 선거기탁금
   - 감사선거 : 100만 원
   - 납부계좌번호 : 신협 131-013-307505 / 광주건축사회
6.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무국(T.062-521-0025~6)

2019. 2. 18.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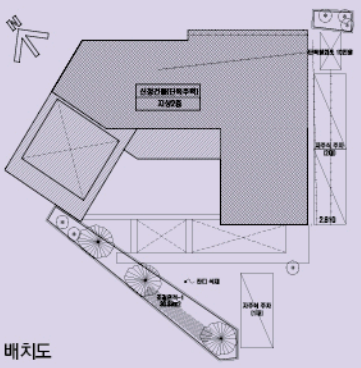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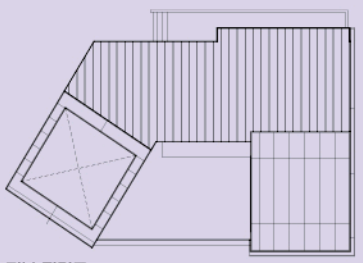
- **입회**
  - 서영주 건축사 / 서건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98, 2층
- **변경(소재지)**
  - 김기영 건축사 / GY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3번길 17-17

조용한 동하마을 한켠에 자리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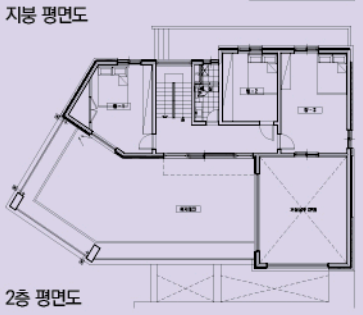
서구 세하동에 위치한 '동하마을'은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진 평화롭고 한적한 마을이다.
우리는 대지의 남동쪽으로 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백마산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남측 뷰를 최대한 열어 줄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하였다.
1층 마당과 테라스, 2층의 휴게 데크 등의 외부공간은 자연스럽게 내부와 이어지면서 공간이 확장하도록 하였으며, 2개 층이 오픈된 개방감 있는 거실에서는 빛과 공간의 풍요로움을 담고 싶었다.
다채로운 공간 속에서 클라이언트 가족이 오래오래 살면서 행복한 삶을 보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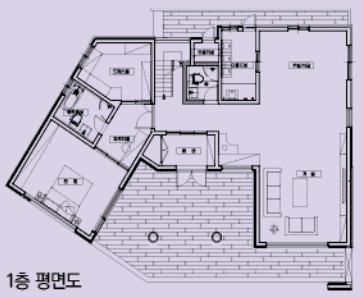
배치도



지붕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일반분야) 금상 수상작

비주거 부문

설 계 자 : 이균수 건축사 (㈜맥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기양리 217-2
대지면적 : 1,461.00㎡
건축면적 : 290.18㎡
연 면 적 : 406.66㎡
규 모 : 지상 2층
주 용 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구 조 : 일반철골조
주요마감 : 징크판넬, 스터코

익산시 도심으로부터 20여 분 거리에 있는 미륵산 등산로 출발점에 위치한 이 대지는 사방이 산야의 전원 풍경이 가득한 곳이었다. 근처의 야트막한 동산과 들판에 인접하고, 북쪽 미륵산 정상과 뻗어내린 산자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계절에 따라 넉넉한 전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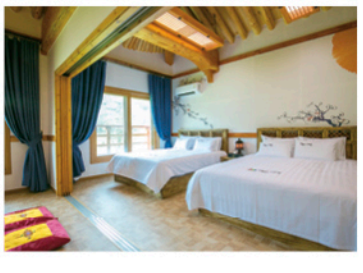
건축주는 이곳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고, 이에 설계자는 그늘진 처마를 통한 선명한 풍경, 테라스를 통한 넓게 펼쳐진 풍경, 중정 공간을 통한 인공의 풍경을 담아내는 공간을 완성하였다.

한옥 부문

설 계 자 : 진헌용 건축사 (그린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1 외
대지면적 : 695.00㎡
건축면적 : 136.62㎡
연 면 적 : 273.24㎡
규 모 : 지상 2층
주 용 도 : 단독주택
구 조 : 목구조
주요마감 : 한식기와, 전벽돌

전주 한옥마을 인근 대성동에 한옥형 주거 및 숙박 시설 단지계획으로 한옥마을과 연계된 관광숙박 및 주거시설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된 계획이다. 6,000여 평의 대지에 2층 규모의 한옥 11동을 전주천을 따라 처마를 맞대고 일자형으로 배치하였으며, 세미나 및 단체 회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과 휴게시설, 조경시설물 등을 배치하여 다목적 공간으로써의 시설 활용성을 고려하였다. 전통 목구조의 2층 한옥으로 계자난간을 이용하여 층간 구분을 하였고 실내공간은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현대식 한옥으로 전통 주거단지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단지계획을 하였다.



제32대 시·도건축사회 회장 협의회, 1월 부산 회의 성료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 전국 확대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제32대 시도건축사회 회장 협의회(이하 협의회) 모임이 부산에서 개최된 가운데 건축계 현안에 전국 시도건축사회의 뜻을 모았다.

지난 1월 11일, 12일 양일간 부산건축사회(회장 김경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건축물을 둘러보는 건축 투어와 건축계 주요 현안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과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논의의 건, 공제조합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의 건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에 따라 대구건축사회에서 시행 중인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대구건축사회 공정섭 회장을 위원장으로 김경만(부산)·김양희(충남)·류재경(인천)·이길환(전북)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4명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분담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사의 전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후 재논의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사공제조합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작년 12월 19일, 4천2백여 회원의 12만7천 계좌(전체 계좌 56%, 추정치)를 위임받아 건축사공제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공제조합 정관 규정에 따르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1월 18일) 이내 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 측은 소집요구서의 서류 하자를 결격사유로 들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의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르면 소집요구서에는 일체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협의회 후 진행코자 했던 공제조합 직무대행과의 간담회도 공제조합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은 오는 3월 11일 ‘제4회 정기총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김경만 회장은 “건축사공제조합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조합원과 상생의 노력이 없어 보인다”며, “국토부 감사 결과에 여실히 드러나듯 공제조합의 일방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는 향후 논의와 합의사항을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에게 일임했다.

이 밖에 기타 안건으로 국토부 건축정책관실과 시도건축사회 회장단과 간담회 정례화를 요청키로 하고, 세움터를 통한 인·허가서 및 각종 필증의 온라인 출력이 가능함에도 불구, 허가청 직접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는 지역을 파악해 업무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투어는 부산의 현대건축을 상징하는 영화의전당을 비롯해 ‘키스와이어 기념전시관’과 ‘F1963’, ‘힐튼호텔 및 아난티코브’, ‘누리마루 APEC 하우스’, ‘UN기념공원’, ‘오륙도 스카이워크’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한편, 제32대 시도건축사회 회장 협의회 모임은 지역 간 정보교류와 건축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자료제공 : 부산시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2019년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오는 2월 28일 실시하는 제53회 정기총회에서 선출... 서울지역 건축사 2인 등록

성명	임영석	박종철
소속	액츠 건축사사무소(주) / 서울	네이버스 건축사사무소(주) / 서울
사진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5년 인증받아

지난 1월 31일 자로... 최초인증에서 부적합 항목 없이 인증 획득은 처음

지난 1월 31일 순천대학교 건축학부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최초 인증을 받았다.

또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 이래 최초인증에서 부적합 항목(Not met) 없이 최고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한 학과는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실사는 작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먼저 건축학 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 관점에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 대학교, 학생, 건축사, 사회를 기준으로 삼고, 두 번째로 교육 프로그램 운용체계 및 교육환경에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 평가체계, 학위 및 교과과정, 학생 정보, 인적 자원 및 운용체계, 물리적 자원 및 정보자원, 재정자원, 연구 활동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학습 성과로 학생 수행평가 기준을 평가했다.

한편,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2019년 2월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졸업 후 3년간 실무수련을 수행하면 건축사예비시험을 면제받고, 바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순천대학교 민세원 학생기자

노후 건축물, ‘이자 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 하세요!”

국토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이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이 다각화됐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이 간소화됐다.

【 신용카드 연계 이자 지원 】

소액·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기존 은행 대출 최소 300만 원 → 카드사 대출 최소 5만 원)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 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비주거 건축물 거치 기간 도입 】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 기간 2년(이자 지원은 거치 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할상환 방식 적용)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 】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Tel. 031-738-4969, 4976)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자 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2019년도 이자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 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책 소개 _ 배성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소년이 온다

한강(소설가) 저 / 창비 / 2014. 05. 19.

광주에서 태어나 배우고 자라온 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이 들으며 배워왔다. 광주의 모든 곳에는 당시의 아픔이 서려 있고, 이를 현재(現在)의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곳곳에 참혹한 사진과 아픈 글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것은 시대와 역사라는 긴 맥락 속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당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보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정보와 단편적인 아픔들을 만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역사적 사실은 충격을 주지 못하고 감정은 무뎌지는 것을 느꼈다. 5·18민주화운동은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게 되었고 공감이 정착됐기에 아픔은 무뎌지고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주입되었던 그들의 희미해진 역사와 아픔은 '소년이 온다'를 통해 능동적으로 다가오며 슬픔은 분노가 되고 아픔은 내 속에 실재(實在)하게 된다.

총에 맞아 죽은 친구를 찾아 나선 동호의 이야기, 뜨거운 고름 같은 눈물을 흘리는 은숙의 이야기, 그리고 손녀를 찾아 산을 넘어오신 밤색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의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읽혀지고 생생하게 보여 무뎌진 감정은 살아나게 하고 기억은 또렷하게 만든다.

사실같이 정교한 허구와 역사적인 고증 사이, 애매한 경계에 있는 '소년이 온다'는 읽는 자들로 하여금 소설임을 망각하게 하고 독자들을 그때의 아픔으로 침몰시킨다.

'소년이 온다'는 6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전지적으로 풀어낸 1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마다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서술한다. 한강 작가의 정교하고 섬세한 문체와 역사적 고증이 5·18의 참상을 더욱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한다.

法家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 공증업무, 송무업무, 등기업무, 신청업무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대표번호사
박 철 / 朴 哲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7(지산동)
T . 062-233-8071
F . 062-223-5376
E . bubga8070@gmail.com
www.법가.com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고 리

편리해서 좋고
살맛나서 좋고
서로가 좋은 일을

쏠어내고, 닦아내고
쇠사슬로 옭죄어도

너도 잡고
나도 잡고

누가 잡아도
단물 우려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을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
나랏님도 못 낫는 병인 것을

저들끼리 도란도란
병 앓는 소리를

서민들은

그저 숩숩하게
듣고만 삽니다.

세상사는 느낌 _ 임준영 학생기자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내일 그대와

내일 그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오늘 그대와 함께 살 집을 지을 거예요.
크기는 한두 평이면 적당할까요.
어디서든 그대를 볼 수 있게.
그리고 작은 창 하나도 만들어 볼게요.

내일 그대와 마주 볼 수 있다면
나는 오늘 그대와 나눌 이야기들을 생각할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들은 모두 떨쳐버리길 바랄게요.
때론 힘들 때 우리가 함께 보냈던 소중했던 추억들이
첫 번째 손님으로 찾아올 거예요.

Designed by macrovector / Freepik

내일 그대와 입 맞출 수 있다면
나는 오늘 그대의 얼굴을 그려볼 거예요.
하얀 벽을 환하게 웃는 그대의 모습으로 채울게요.
어쩌면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 실망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대는 미소를 지을 거예요.

내일 그대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이런 걸 상상해봐요.
사실 내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오늘이 있다면...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아키엠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PC로그인 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